

대행 스님

인연줄에 얽힌 것 화끈히 한순간에 벗어던지고 일어서라

주인공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질문 저는 주인공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가슴으로 확 뚫리지 않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채찍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러니깐 첫째, 자기가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공을 진실히 믿는다면 일체 모든 것을 거기 놓고 돌아가지 않을까요? 남이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자기 마음 가운데에 마음이 또 있어요. 그 마음과, 마음 아닌 마음과 상봉을 해야만이 족하다고 할 수 있지요. 진짜 이끌어 갈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말하자면 자기 조상이에요. 자기 조상부터 발견해야 남의 조상도 내 조상 아님이 없다는 도리를 알게 되고, 내 몸뚱이 속에 그 악업 선업의 중생들을 다 항복받을 것이고, 모두 보살로 화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 아닙니까.

이 중생들은 잘하고 못하고 그것도 느끼지 못해요. 사람이 사람으로 화하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고 좋은 것도 알고 나쁜 것도 알고, 나쁜 길로도 갈 수 있고 좋은 길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고 99% 부처가 된 것이 바로 그거지요. 그런데 한 생각을 잘못해서 세세생생에 끄달린다면 그건 말도 안 되지요.

우리가 안다는 거를 지금 관념 속에서, 그 습에 젖어서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 청규는 이런데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 이런 것에 빠진다면 안 됩니다. 그런 걸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율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지요. 남의 말을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남의 이름을 찾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남이 내게 갖다 줘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 갖다 주는 것도 없고 갖다 주지 않는 것도 없는 그 자체에 인연줄이라는 게 얽혀서, 얽히고 얽혀 있는 인연줄에 얽혀서 일어나지 못하지 말고, 인연줄에 얽힌 것을 화끈히 한순간에 벗어던지고 일어서라 이런 거지요. 그러려면 먼저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 마음을 내라고 시키는 것도 아니고, 말을 하라고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가 생기면 말을 하게 되고 용도가 생기면 행하게 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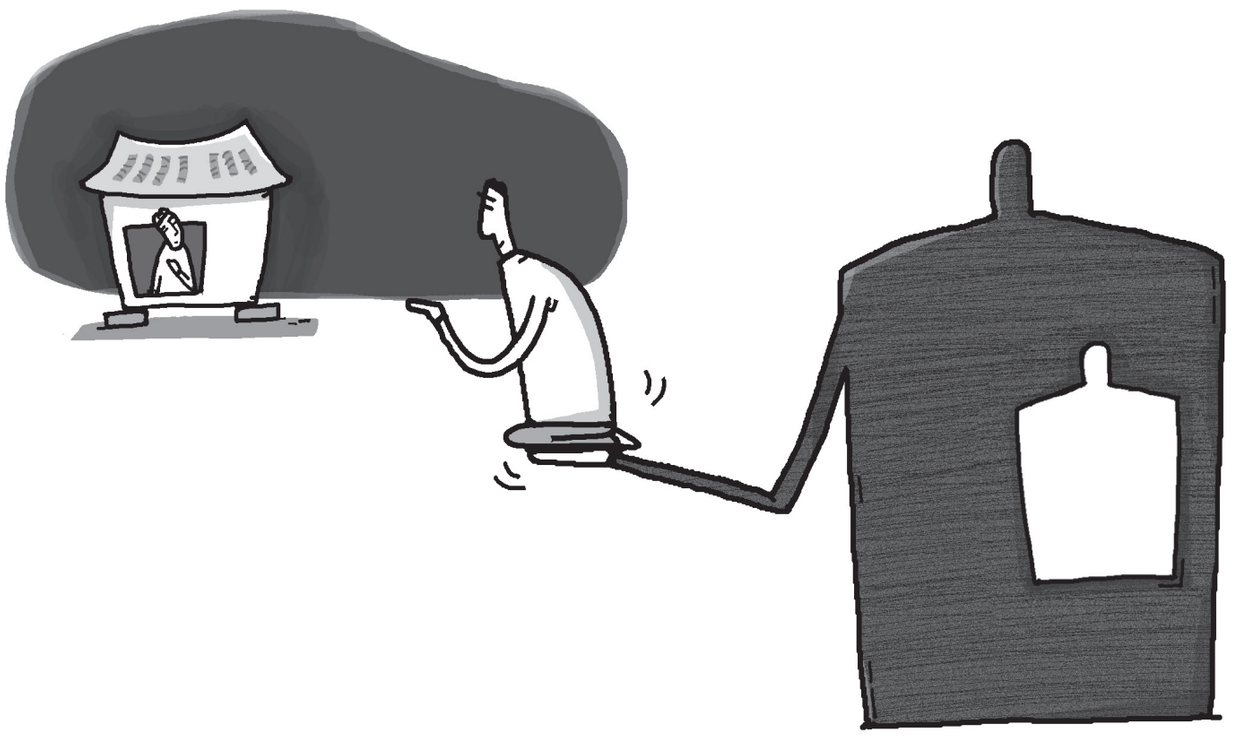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기 마음으로써 자기를 다스려서…. 이 속에 있는 중생들은 모르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이렇게도 해라 저렇게도 해라 하고 나오는데 이 마음이 '아,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되는 일이고 안 된다.' 하는 거라면 다스리는 그 작용이다 이겁니다. 안 되는 것은 나를 테스트해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감사하다' 그러곤 다시 놓게 될 때, 다시 굴러서 다시 돌아서 나오죠.

이게 직접 들어가는 순리요, 바로 통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스스로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다 이 소립니다. '오신통을 안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했던 것은 오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일체 만생 만물이 돌아가는 이 세상살이가 하나도 중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제 나누는 삶 살고 싶어요

질문 저는 지금까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돈을 모으려고만 했지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해 보고 살았습니다. 이제 마음공부를 하다 보니 둘 아닌 마음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나누는 삶을 살고 싶어졌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변 나도 내 마음이 편하자고 그러는 겁니다. 힘든 모습을 보면 나도 슬프고 찢어지는 듯 아프니까. 왜? 둘이 아닌 까닭이죠. 부처님께서 그 인생을, 수없이 진화돼서 형성되는 그 돌아가는 수레를 다 뼈 한 무더기로 얘기를 하셨잖습니까? 그러니 멀리 봐도, 가깝게 봐도, 삼천 년 전도 현실인데 현실에 다 내 부모였고 내 자식이었고 내 형제였는데 어떻게 그것을 남으로 보겠습니까?

깨치면 아주 좋게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금을 감고 그냥 호의호식을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지만 즐거운 건 사실이죠. 왜냐. 예를 들어서 막상 가난한 사람이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간다 그랬을 때, 그리고 또 어떤 집에서 병이 들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애쓴다 이럴 때, 돈이 없어서 병원에도 못 가고 병원에서 버림을 받았다 이럴 때, 그게 상황대로지 어떻게 골라가면서 합니까, 상황대로지. 그렇게 주고 나면 그렇게 싱그럽고 좋을 수가 없어요. 주는 것밖엔 좋은 거 없습니다.

세상에 남의 걸 달래서 먹을 생각을 한다면 그건 항상 얻어먹어야 되고 남을 주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면 항상 주면서 살게 됩니다. 그 한생각이 아주 중요하지요. 여러분도 실천을 해 보세요. 주면서 살아야겠다 한다면 주면서 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얻어서 꼭 살아야지, 얻을 데도 많은데.' 이러면 꼭 얻어서 살게 되죠.

부처님의 밥도 말입니다, 저 부처님의 공양 밥도 그거를 얻어먹는 걸로 먹어선 안 됩니다. 내 밥 내가 먹을 줄을 알아야지요. 그래야 내가 자유스럽게 남도 퍼 주고 살잖아요. 남의 밥을 얻어먹는다 하면 어떻게 밥 한 숟가락 남에게 줄 수 있겠어요? 내 밥이라야 맘대로 퍼 주지. 내가 못 먹더라도 퍼 주고 그러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길에 가다가도 가난하거나 어려운 사람 보면 한생각 내 주고 돈을 주더라도 그냥 줄 뿐이지, 뒷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걸 줬으니까 좋은 일을 했지.' 이런 생각도 마시고요. 그걸 어떻게 내가 줬다고 하겠습니까, 둘이 아닌데 말입니다. 내가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고통을 공부로 삼으려면

질문 모든 게 공부 재료라고 그러는데 저는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고통을 공부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가지고 살아야 하겠다 하는 거는 누구나가 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속의 중생이 튼튼하고 중생이 잘 먹어야 내가 잘 다니고 건강하다는 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중생이 어떤 게 중생입니까? 자기 몸뚱이는 중생의 두목입니다. 그 두목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중생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생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속에 있는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이 같이 있죠.

그래서 한 생각을 잘해서, 아프게 했다면 네가 조립해서 네가 만든 거니까, 아프게 된 것도 잘못된 것도 어디가 다친 것도 모두 네가 그럭한 거니까 다시 낫게 할 수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